

## "조국은 은퇴과학자 외면...중국에서 기회를 주네요"

이정준 생명연 명예연구원, 중국 '千人계획' 선발돼 5일 출국  
파격조건으로 해외인재 유치...우리나라는 정년문제도 못풀어

지나라 기자 nara@hellodd.com

입력 : 2013.03.05 | 수정 : 2019.01.03



"낮선 중국 땅에 가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제 조국인 한국에서 국가에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죠. 한국에서는 저 같은 은퇴과학자에게 더 이상 연구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하니 고민 끝에 떠나게 됐습니다." 5일 아침 8시. 중국행 비행기 탑승을 준비하는 이정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의 목소리에서는 중국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기쁨보다 은퇴과학자의 손발을 묶어놓는 우리나라 과학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게 전해졌다.

그는 "끝내지 못한 연구도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도 많지만 정년이 됐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연구원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지 않기에 중국으로 가게 됐다"며 수화기 너머 들릴 듯 말 듯 나지막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라고 읊조렸다. 예순을 넘겼지만 아직 연구열정과 꿈은 30대 젊은이 못지않은 이정준 박사. 그는 출국 직전 대덕넷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중국정부의 해외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에 선발된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나라 퇴직과학자 정책에 대한 짧은 소회를 밝혔다.

### ◆ 지난해 12월 중국정부 천인장 수여, 함께 뽑힌 40여 명 모두 중견·원로 과학자

2010년 12월 생명연 정년퇴직. 이후 연번대 초빙교수로 활동하던 이정준 박사가 중국의 천인계획 해외전

문가(foreign expert)로 선발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중국 과학분야에서 실력 있는 호스트 커넥션(추천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이 박사와 중국의 인연은 생명연 근무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97년과 1998년 대덕연구단지와 중국 상하이에 각각 설립돼 공동연구와 정보 교류 등을 수행했던 '한·중 생명공학 협력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공동연구와 포럼 등을 진행해 왔다. 그가 생명연에 근무할 당시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학생과 제자들이 그의 은퇴 소식을 듣고 연벤대 초빙교수로 모셨다.

이후 약 2년 동안 연벤대에서 진행했던 연구가 좋은 성과를 내자 제자들이 호스트 커넥션 역할을 하며 중국정부에 해외전문가로 추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해외전문가 천인장을 수여받았다. 이 박사는 앞으로 3년간 중국정부의 지원받으며 연벤대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대신 1년에 9개월 이상 중국본토에 체류하며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는 "연벤대에 도착하면 바로 연구기자재 확보부터 시작해 연구를 위한 랩실과 연구인력을 꾸려야 하기에 정신없이 바쁠 것 같다"며 "1년에 3개월의 휴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연구의 속성상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중국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연구기반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리 호락호락한 작업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생명연 재직시절 생물자원에서 의약선도물을 개발하고 이들의 분자약리기전 연구를 진행했다.

또 미생물대사산물의 생합성연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항암제 개발연구, 국내 자생오가피가 각종 유해 독성으로부터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우수함을 밝히고 기술 이전에 성공, 2004년에는 'KRIBB 우수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우수한 과학자였다. 하지만 61세 정년 이후 그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학술재단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짜리 과제가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지원받지 못하는 은퇴과학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는 "과학자 정년연장은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해법 등 많은 난제들과 얽혀서 풀기 힘든 과제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미국 등 해외 각국이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있는 인력도 활용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출연연 재직 시절 대외활동보다 연구실 생활을 고집했던 그는 정부 인사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수인재 유치와 출연연 정년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화학연과 진행한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우식 부총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부총리께 이공계 지원과 연구원 정년 연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그로부터 십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출연연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연구를 잘하는 연구원, 연구소에 꼭 필요한 연구원은 정년에 상관없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조건이 너무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선별적으로 연구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장의 반대로 표류하고 말았다. 연구 인력에 한해 논문 성과, 업무 능력 등을 파악해 10년 동안 연구원 인력 10% 중 책임연구원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1990년대 말 출연연 정년은 책임급 연구원 65세, 선임급과 일반 직원은 61세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각각 61세와 59세로 낮췄다. 그가 모든 연구원의 일괄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난 3년간 연구성과 우수자, 논문과 특허수, 표창 받은 사람, 부장 직급을 한 사람과

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으로는 정말 연구를 잘하는 연구자가 정년연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연구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없애고, 정부에 연구과제 신청시 정년에 상관없이 과거 연구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누구나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공정하게 평가,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출연연의 객관적 평가시스템이 작동해 정말 연구를 잘하는 연구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과학기술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천인계획 등 과학기술 우대정치 다양

이정준 박사가 12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천인장을 수여받던 현장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 활동하던 내로라하는 과학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대부분이 중견과학자들로 40대 중후반부터 70대 백발 과학자의 모습도 보였다. 그중 한국인은 이 박사를 포함해 단 두 명이였다. 이 박사는 2년 전 포스텍 수학과 교수직을 퇴직하고 베이징교통대에서 수학을 강의하는 곽진호 교수가 함께 자리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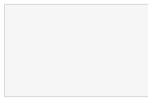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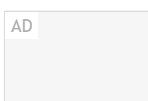
중국이 최근 유인우주선과 달 탐사 등을 잇따라 성공하며 과학강국으로 발돋움한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과학우대정책이 있다. 특히 1950년대부터 해외에서 활약하는 교포과학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한 것이 커다란 원동력이 됐으며, 이러한 전통은 천인(千人)계획으로 이어졌다. 천인 계획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한 인재영입 프로젝트다. 5~10년 내에 국가급 인재 1000~2000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선발자에게는 100만 위안의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학이나 국영기업 혹은 연구소 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50만 명의 해외 고급 두뇌들을 유치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공계 우수인력에게는 당성도, 사상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이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약 1500명의 해외전문가 유치에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반대다. 유능한 과학자들은 정년에 발목이 잡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 개발 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정년퇴직을 앞둔 60세 이상 과학기술인은 5488명이다. 2002년 2162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매년 12.3%씩 증가했으며 앞으로 10년간 은퇴과학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1970~80년대 경제 발전기 과학기술계를 이끈 1세대 과학자들이 한꺼번에 정년을 맞고 있지만 연구현장을 떠나는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공계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해서도 고급 경력 과학자의 활용과 지원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해외에서 성공한 인재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국적을 문제 삼는 풍토와 학연과 지연을 따지는 끼리끼리 문화가 강해 우수인재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대덕넷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상가상 국내 과학자 10명 중 7명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이 땅을 떠나겠다고 했다.

연구에 매진할 수 없는 풍토, 척박한 자녀교육 환경, 미흡한 대우, 이공계 기피, 불안한 장래 등이 원인이다. 2011년 해외로 나간 학생은 29만 명인데, 귀국 학생은 9만 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정부를 출범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중국으로 떠나는 이정준 박사의 제2의 연구자로서의 삶을 응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능한 과학자들이 조국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원한다.

관련이슈

-  '인공지능 vs 토건' 예타 면제, 과학계 때린 메시...
-  [기자수첩] 지나친 관료화와 연구 자율성
-  [새통사]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
-  AD 전투기에서 사용했다던 이것, 자동차에 달아봤더...



